

함께하는 ^{공공}이웃

June 2019 vol.182



같은 하늘 아래
분홍, 초록, 흰색 때로는 바람으로 자리하는 너
너의 모습에 따라 달라 보이는 그러나 변함없는 나

시시때때로 옷을 갈아입는 너와 함께하면서도
결코 변하지 않은 그 이름 태화

98년,
수백 번 옷을 갈아입는 나무처럼
시대라는 신을 신은 이웃의 시간과
그 모든 발걸음에 함께한 태화

태화는 1921년 4월 4일에 개관하여,
당시 소외되었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곁에서 그들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태화가 걸어온 발자국과
태화가 나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의 발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남겨질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정민지 사회복지사(복지사업1팀)





04



08



10



16

June 2019 vol.182

Contents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04	태화가 걸어온 길	14	지역조직화사업 나침반 「지역복지현장연구」
06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곳 「태화 아름드리키움센터」	16	일할 맛 나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08	‘인생의 맛’ 맛보고, 나누고, 베풀다! 「인생의 맛, +(플러스) 레시피」	18	〈태화가 만난 사람〉 김민우 운영위원장
09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청춘은 바로 지금! 「태화청바지」	20	TAIWHANA NEWS
10	장애인과 함께 조화를 이룸 「빌링슬리아카데미」	23	후원소식 2019년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보고
12	우리 동네 방방곡곡 인사하기 「마을로(路) - 두발로」	24	후원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

2019년 6월 발행(통권 182호)

● 발행인 윤연주 ● 편집인 정민지 ●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기획&인쇄 화이트 Tel.512-3747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태화어린이집, 태화해뜨는샘, 강남구청소년쉼터,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화어린이집 Tel. 2040-1680, 태화해뜨는샘 Tel. 2040-1780, 강남구청소년쉼터 Tel. 512-7942,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Tel. 2040-1690

「중」 독립선언서 서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태화가 걸어온 길

글 권지혜 팀장(평생학습팀)



3.1 만세운동.

1919년 2월, 감리교 전도사였던 정재용 선생은 조선기독교중 앙청년회(YWCA) 간사이자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박희 도 전도사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강화조약의 기본 조건으로 1918년 1월 에 발표한 14개 조항 중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 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해 서울에서 비밀 리에 독립운동을 기획하니 급히 상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후 긴박하게 준비작업이 진행되었고, 드디어 3월 1일! 일본 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뜻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한 전 국민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화관, 독립선언서가 낭독되다.

탐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일 새벽 인사동의 태화관(당시 명월 관)으로 그 장소가 변경됩니다. 독립선언서 낭독과 3.1운동은 일본에게 실력행사를 하기 위함이 아닌, '독립을 선언'하는 메

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데 공원에 모인 군중이 갑자기 만 세를 부르며 시가로 행진할 경우, 차질 고종의 장례 때문에 울 라온 사람들과 합세하게 되면 혼란과 유혈 충돌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사회사업센터 태화여자관되다.

만세사건이 일어났던 때, 태화관의 실소유주는 매국노의 상징 이었던 이완용이었습니다. 친일파인 이완용은 건물을 바로 내 놓았고 태화의 초대관장인 마이어즈 선교사가 1920년 11월, 이완용으로부터 명월관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월관은 임대계약이 남았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그 다름으로 마이어즈 선교사와 양주삼 목사가 교회 기 를 내걸면 명월관 측에서는 요릿집 기를 바꿔 내거는 일을 반복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양주삼 목사의 의견으로 성조기를 내걸 면서 명월관은 이것이 외교적 사건으로 비화될 것을 두려워하 여 1921년 2월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태 화여자관이 설립됩니다.



태화빌딩앞에 설치된 독립선언서 동판
1920년대 후반기 태화 직원들
태화사회관 전경



“규중 부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가사 방면, 지적 방면, 영적 방면으로 나누어 실제로 손과 머리와 마음을 연단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된 태화여자관은 최초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사회사업”을 추구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식을 했던 ‘별유천지6호실’도 원형 그대로 간직한 채 태화유치원 교실이 되어 수백명이 넘는 아이들의 배움과 놀이의 장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시국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중지 명령을 받고 종로경찰서에 그 부지가 넘어갔으나 되찾았고, 6.25 이후에는 월남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인형사업 / 편물공장을 설립하여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침내 외국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었던 태화가 우리민족의 ‘자결권’을 이야기했던 6대 빌링스 관장의 의지로 1960년, 한국인 관장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9년 ‘태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1921년부터 시작된 깊은 역사 속 다양한 사람들의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모여 지금의 태화를 이루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장소로 우리나라 독립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태화’

이 세상 소외된 아동과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해,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온 ‘태화’

2019년, 현재에도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태화’

태화는 많은 위기 속에서도 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질문하며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운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온전한 조화, 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곳

#강남구 키움센터 1호 #서울시 유일의 발달장애 초등돌봄
#밀고 말기는 #즐겁고 안전한



글 황현정 팀장(태화아름드리키움센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태화관이 시작되는 초기, 모든 아동을 위한 유희장 사업을 시작하였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아동보건사업, 우유급식사업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태화는 사회적 약자이며 자신의 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아동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에 대한 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맞벌이 가정에서는 초등생 자녀를 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부모들은 자녀 돌봄과 양육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아동돌봄에 대한 공백과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정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와 지역의 욕구를 반영하여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는 4월 1일부터 “태화아름드리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마을의 중심에 자리잡은 아름드리 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만남을 제공하였듯이 키움센터가 마을 돌봄의 중심이 되어 아동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키움센터 교실 전경

태화 아롬드리키움센터



키움센터는 방과후와 방학중에 돌봄교사가 상주하여 아동들에게 문화, 스포츠, 학습지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태화는 발달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반을 운영합니다.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합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를 아우르고 함께 어울려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한 키움센터가 이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곳,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태화 아롬드리키움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강남구 거주 또는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재학 1~6학년 아동(발달장애아동 포함)
- 운영시간** 월~금 13:00~19:00(방학중 초등돌봄반 9:00~19:00, 장애초등돌봄반 11:00~19:00)
- 장 소** 초등돌봄반 4층, 5층 / 장애초등돌봄반 3층
- 사업내용** 방과후돌봄, 문화, 스포츠, 학습지도, 부모모임 등
- 문 의** 초등돌봄반(02-2040-1735), 장애초등돌봄반(02-2040-1696)



함께 만들고, 맛보는 '나이드는 맛' 한 평생 살아온 물고기 부부 (푸드아트테라피 활동 중)

‘인생의 맛’ 맛보고, 나누고, 베풀다! 인생의 맛, +(플러스) 레시피

글 강하영 사회복지사(복지사업1팀)

강남구에 몇 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실까요? 2019년 제 4기 강남구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르면, 강남구 내 65세 이상 노인인 64,946명(2017)으로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외로움과 소외, 고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화는 이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태화는 '나이 드는 것,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서 나타난 '외로움, 소외, 고독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에 건강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는 '레시피'의 역할에 대한 필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어르신들 스스로가 지역사회 안에서 '레시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삶의 터전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인생의 맛, +(플러스) 레시피'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5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20명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구조이며, '푸드아트테라피' 활동을 활용한 '나이드는 맛'과 인생의 세 가지 맛(쓴맛, 단맛, 매운맛)을 찾

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인생의 맛 인문학활동',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힐링 여행', 끝으로 모두가 함께 '인생의 맛'이 담긴 음식을 준비하여 이웃과 가족을 초청해 나누는 '마무리 잔치: 맛의 초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6월에 접어들면서 지난 시간들을 함께 돌아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과 뜻깊은 소감도 나눠주셨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몸도 마음도 즐거워요."

"복지관에 수영 말고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는 게 좋아요. 앞으로가 기대돼요"

"어딘가에 속해서 올 곳이 있다는 것이 설렙니다."

"내 인생의 맛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내 맛도 찾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의 맛도 같이 맛보면서 의미 있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인생의 맛, +(플러스) 레시피'가 지역 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이롭게 하는 과정을 돕고, 안내하는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쓰지만 달고, 매콤했던 '인생의 맛'이 지역사회에 베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태화청바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청춘은 바로 지금!

클 이수연 대리(평생학습팀)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태화의 인근지역인 수서, 일원, 세곡동의 65세 이상 인구가 26,657명으로 전체인구의 22.15%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거 노인은 질병, 소외, 돌봄의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주되었지만, 최근 은퇴 후 새로운 인생 후반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50-70대 액티브 시니어가 증가하며 그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태화는 이러한 변화에 발을 맞추고, 태화의 비전인 '관계를 중심으로 함께 세워가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어르신들에게 기존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실천하기 위한 '태화청바지'를 기획하였습니다.

'태화청바지'는 아이언맨(실버스트레칭 강사 양성), 내 인생의 스케치북(나만의 책 만들기) 2개의 프로젝트입니다. 총 20명의 참여자들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버스트레칭으로 인해 먼저 나의 건강에 좋은 효과를 얻으면 좋겠고, 또 이를 주변의 노인들에게 자신있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 체계적인 활동 부족으로 고민이었는데, 건강과 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대가 큼니다'

'부끄럽지만 내 글을 통해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참여자들의 기대 -

2019년 9월부터는 평생학습을 통한 배움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은 지역주민들에게 스트레칭 <내 인생의 스케치북>은 노인인식개선을 위해 직접 제작한 책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태화청바지'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배움의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참여형 노인'의 개념을 세우고, 향후 지속적인 관계 맺기와 사회환원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버스트레칭 강사에 도전하는 '아이언맨'팀
나만의 책만들기에 도전하는 '내 인생의 스케치북'팀





장애인과 함께 조화를 이룸 빌링슬리아카데미

“사실 성인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자녀들과 길을 가다가 발달장애인을 마주칠 때는 내심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분들을 만나서 함께 운동을 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때로는 열정적인 모습도 느끼게 되었어요. 저의 생각이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미안한 마음이 생겼죠”

한 프로그램 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빌링슬리아카데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글 임준기 사회복지사(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태화의 4대 관장 빌링슬리 관장님의 발자취를 따르다

강남구장애인부모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강남구에 성인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터전을 잡고 운영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태화는 지역의 발달장애인과 부모님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가장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온 태화는 지역사회에 거주중인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들과의 통합활동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품었습니다.

태화 역사에서 "이웃에 의한, 이웃을 위한" 사업을 개척하고, 개혁기를 연 4대 관장 빌링슬리관장님(M. Billingsley, 1933~1940 역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2014년 6월 25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전국 최초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인 빌링슬리아카데미(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빌링슬리아카데미가 태화와 함께 걸어온 길

빌링슬리아카데미는 전문교육과정, 예술교육과정, 크라프트교육과정, 체육교육과정, 필수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취미,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단계로 나아가 지역사회 지원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자기 결정권보장을 기반으로 당사자들의 선택과목 선택 및 당사자 자조모임, 동아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링슬리아카데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복지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뛰어넘어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안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통합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태화인으로 가치를 실천하는 실천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빌링슬리아카데미가 태화와 함께 나아갈 길

평생학습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습' 이라고 볼 때 발달장애인 또한 평생학습권에서 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있어 평생교육은 직장과 여가를 포함한 삶 자체이며 사회·문화인으로 성장하고 지지체계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듯 빌링슬리아카데미는 역사적으로 이웃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함께 해왔던 태화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며 당사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다해 애쓰고 있습니다.

빌링슬리아카데미의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와 태화에서 가치 있는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서역과 일원역
 사이에 있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을 아시나요?
 저희는 이 지역 안에서 함께 하며 지역의
 다양한 부분을 잘 거들기 위해 고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 곳곳에 계신 분들에게
 자주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알고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우리동네
 방방곡곡 인사하기
마을로(路)
‘두발로’

글 이지연 사회복지사
 (복지사업2팀)

「마을로(路)」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를 돕고,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자
 2019년 새롭게 문을 연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며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탐색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이웃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의 생생한 모습을 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지역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직접 지역에 나가는 ‘두발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2회 씩 지역을 정해 '두발로' 누비며 카페, 편의점, 미용실, 사우나, 교회, 서점 등 지역 구석구석을 지키고 있는 곳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대해 잘 알고,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부동산 사장님,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카페 직원 분, 그동안 잘 몰랐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말씀하신 편의점 사장님.

올해 '두발로' 활동을 하며 지역을 누비고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역 안에서, 지역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지역의 이웃을 만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한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살터가 되는 이 지역을 잘 거들기 위해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는 저희를 만나면 함께 반갑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도 '두발로' 걸으며 '마을로(路)' 향합니다.



지역조직화사업 나침반 지역복지현장연구

글 임장현 팀장(복지사업2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사업은 지역사회 공생(共生)을 실천 가치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 간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임대지역 주민주도형 경제모델 지원사업 맘(mom)모아 손잡(job)고(go)」사업과 「나눔이웃 활성화사업 '살맛나는 우리동네」사업은 지역 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대표적인 지역조직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업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역조직화 과정에서 의미 있게 드러난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조직화사업의 향후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지역복지현장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돌아보고 더 나은 실천을 위한 밑바탕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는 자곡동에 위치한 한양수자인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인 '카페 이웃사이'를 통해 주민조직화를 시도했던 「맘(mom)모아 손잡(job)고(go)」사업에 대한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카페 이웃사이에 활동가로 참여하셨던 여러 지킴이¹⁾분들과 아파트 입주자 주민대표회 임원단의 목소리

를 통해 「맘(mom)모아 손잡(job)고(go)」사업이 '단지 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 이웃사이'가 단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힘껏 뽐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기대하게 해주었습니다.

2019년, 또 다른 지역조직화사업인 「나눔이웃 활성화사업 '살맛나는 우리동네」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태화의 지역조직화사업 방향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살맛나는 우리동네'는 2014년부터 강남대시앙파크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본 사업은 명랑마켓, 인사하기 캠페인 등 다양한 주민 간 연결고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의 지난 5년을 지역복지현장연구를 통해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셨던 나누미 분들²⁾,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임원단, 사업을 진행했던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진행하고 있는 지역조직화사업인 '살맛나는 우리동네' 사업의 성과와 의의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활발하게 주

1) 카페 이웃사이에서는 「맘(mom)모아 손잡(job)고(go)」사업 내 카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한양수자인아파트 지역주민들을 '지킴이'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2) 강남대시앙파크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살맛나는 우리동네'사업은 단지 주민조직인 '오리엔'을 중심으로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리엔'의 참여구성원들을 '나누미'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민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셨던 '오리엔' 나누미들의 성장과정과 그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감동과 의미가 있는 단지 이야기들이 지역복지현장연구안에 의미 있는 성과로 잘 정리되길 바랍니다. 2년에 걸쳐 진행되는 두 사업에 대한 지역복지현장연구를 통해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사업이 정리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 연구사업을 통해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들을 바르게 섬기는데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할지 조금 더 선명하게 안내해줄 수 있는 '나침반'이 되길 소망합니다.

2019년 제7회 우리동네 명랑마켓에 참여한 오리엔과 지역주민 오리엔과 함께 하는 꽃심기 캠페인
2019년 카페 '이웃사이' 지킴이 상반키 워크샵



“이제는 딱 여기만(이웃사이 카페만) 오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대끼고 지나가면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거나 웃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여기는 웃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잖아요.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죠.” - 참여자 A -

“하나의 시설이 생겼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거겠지만 믿고 사는 이웃을 알게 됐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 봉사자 분들을 다 아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빌려줘 해도 거리낌 없이 필요하면 '나 좀 빌려줘요.' '내거 가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속을 내놓고 같이 할 수 있는 이웃이 많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성과죠.” - 참여자 B -

happy

일할 맛 나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글 변주희 대리(경영지원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경영지원팀에서는 직원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화 비전2021 GREAT HARMONY 중 '조화를 우선하며 함께 걷어가는 태화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태화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는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95명에 달합니다. 이에 조직적 차원에서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2019년 2월에는 직원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 '콤마라운지'를 조성했고, 5월에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로 '태화 전직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심을 통한 회복의 공간, 교제와 협력의 공간 '콤마라운지'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근무환경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태화는 건강하고 즐거운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직원 공모를 통해 공간 명칭은 '콤마라운지'로 하였고, 휴식, 모임, 업무집중이 가능한 형태로 내부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도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추천 책을 기증하기도 하고, 아끼는 인형을 갖다놓기도 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
2019년 태화 전직원 워크숍 <전지적 태화 시점>

2019년 5월, 제주도에서 태화 전직원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개의 팀으로 나눠 일주일 간격으로 2박 3일 간 다녀왔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태화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즐거운 조직문화를 형성한다는 목적 하에 직원들 간 소통의 기회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고자 했습니다.

제주도 해안도로를 따라 가는 자전거 라이딩 체험, 아부오름에서의 풍광 감상, 울창한 삼나무 숲에서의 해먹체험, 두껍게 쌓아 올린 원담 안에서의 소리잡기 체험 등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팀과 부서가 달라서 활발히 교류할 수 없었던 직원들 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직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업무 및 일상에 대한 생각들을 환기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 충분한 자유시간을 통해 힘을 얻고, 다른 직원 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없이 2박 3일간 온전히 먹고 쉬 수 있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태화, 좋은 회사입니다!^^" 라며 워크숍 참여에 대해 높은 만족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태화. 앞으로도 조직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즐거운 조직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태화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미션인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워크숍을 통해 업무 및 일상에 대한 생각들을 환기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workplace



2019년 태화 직원 워크숍

전지적 태화 시점

5월 22일(수)~24일(금) 2차 2019년 5월 20일

태화가 만난 사람

운영위원장 김민우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도곡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계신 김민우 운영위원장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운영위원으로 역임하시고 2019년 5월부터 운영위원장으로 역임하시며 태화의 복지사업 전반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기도로 동역해 주고 계십니다. 운영위원장님을 만나 운영위원장님과 태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글 정민지 사회복지사(복지사업1팀)



Q. 태화와의 인연, 운영위원장으로 역임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한국에서의 감리교 역사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태화에 대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부터 2000년까지 평택에서 목회를 하며 외적으로는 풍요로우나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가진 주민을 돕다 보니 어떻게 해야 잘 돕는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사회복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돕는 것에서 출발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사회복지 석·박사과정을 하며 태화가 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2000년 7월 서울도곡교회에 부임하여 지역 주민들을 섬기던 중에 전임 운영위원장이셨던 김충식 목사님의 권유로 복지관 운영위원을 맡게 되었고, 2019년 5월부터는 복지관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태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Q. 태화의 역사적 의미, 현재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감리교 역사에서 태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태화는 문맹여성의 눈을 뜨게 해준 곳,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고 거리의 아이를 품은 곳이라는 것과 민족의 목소리가 담긴 곳이라는 것에 사회복지뿐

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태화는 지금도 역사를 잘 이어오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필요에 눈을 크게 뜨고, 또 지역주민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먼저로 삼는 태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Q.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태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젊은 세대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학교의 학급과 학생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젊은 세대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화는 현재까지 꾸준히 아동사업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범위를 확장하여 청소년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청년이 힘을 얻어 갈 수 있는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빈부의 차가 있는 지역, 아파트의 주민들, 특히 아이들이 구분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태화를 이용하는 주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성경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라디아서 6:2)'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화를 찾아주시는 주민들께서 태화를 더 사랑해 주시고, 이웃을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우선이 되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화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먼저 이웃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돕는다면, 섬김과 나눔으로 조화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Q. 태화의 직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원분들께도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때론 나의 일이 아닌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일, 우리 팀, 우리 부서의 일로 구분하기보다 돕는 마음을 가지면 스스로도 힘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직원들끼리 가끔 티타임을 가지며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일하며 시너지를 내고, 충분한 섬음 통해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야 주민들에게 더 건강한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화의 모든 직원여러분, 여러분은 수서, 세곡, 일원 지역의 참 좋은 이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웃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6:2)

회원의 날「감사를 전합니다」



운영지원팀에서는 매월 셋째주 태화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회원의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차 한잔의 나눔이었지만 이제는 부활절 메시지 전달이나 어린이 회원들을 위한 음료제공 등 매월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보며 더 의미있는 행사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저녁10시까지 태화 안에서 쉬과 회복을 충전해 가시는 회원분들의 얼굴을 보며 작은 나눔과 인사이지만 소소한 행복을 통해 잔잔한 감동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뽕뽕한 가족「가족캠ป์이야기」



9개의 기관 및 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뽕뽕한가족”에서는 지난 6월 8일-9일 1박 2일 동안 가평에 있는 하늘숲글램핑장으로 가족캠ป์를 다녀왔습니다. 초여름의 더운 날씨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물총놀이를 하면서 가족 및 이웃 간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맛있는 바비큐 파티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캠ป์파이어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가족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좀 더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깊게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남NH3단지 찾아가는 복지센터 「강남NH3단지 학습관」

우리 동네, 우리 단지 내에서 다양한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 '우리 동네 학습관'이 강남NH3단지 내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캘리그래피와 스마트폰 교육이 진행되었고, 강남NH3단지 지역주민 각각 10명씩 참여하였습니다. 학습관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캘리그래피를 처음 하는데 재미있다.”, “핸드폰 사진 찍는 법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매일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강남NH3단지 학습관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근거리에서 문화여가를 향유하고 학습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살맛나는 우리동네 「제7회 우리동네 명랑마켓」



화창한 5월 25일 토요일, 강남대시양파크 내 배드민턴장에서 제7회 우리동네 명랑마켓이 열렸습니다. 올해 명랑마켓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바자회, 먹거리 장터, 비빔밥 행사, 공연, 경품추첨 등 가족과 이웃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먹거리로 입이 즐겁고, 공연으로 눈이 즐겁고, 바자회를 통한 기부로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이번 명랑마켓에서 모인 수익금은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동네 파이팅!

무료G.X프로그램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평생건강팀 태화GYM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시간별 무료 G.X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화GYM을 이용 중인 지역주민들은 누구나 하루에 5회 반별 선생님들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운동방법을 습득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월 평균 800명 이상의 많은 회원님들이 G.X프로그램을 통한 몸의 변화와 운동능력 증가에 따른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태화GYM 트레이너들과 태화GYM G.X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태화어린이집 「어린이날」

태화어린이집은 5월 3일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축하해주기 위해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어린이집을 들어 오면서부터 함박웃음으로 인사합니다.

“선생님, 스파이더맨 옷 입고 왔어요.” “드레스입고 왔어요.” “전 번개맨이에요.” 저마다 신이 나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비눗방울 놀이와 볼풀에서 사탕 찾기도 재미나고, 친구들과 짝지어서 조심조심 달리기도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신나는 건 선물을 받는 겁니다. 아이들의 함박웃음으로 어린이날이 더 해맑고 화사해졌습니다.

태화해뜨는샘「2019년 클럽하우스세미나 참여」



지난 5월 29일 마포도서관에서 '2019년 전국 클럽하우스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청중앞에서 '클럽하우스 안에서 행복한 나' 라는 주제로 이현경 회원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발병하기 전보다 발병한 후에 더 행복하며, 태화해뜨는샘이라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발표 내용처럼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삶을 누릴 줄 아는 것이 행복의 밑거름인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지역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태화해뜨는샘이 함께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소년쉼터「봄 나들이」



강남구청소년쉼터에서는 지난 5월 30일 입소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 강릉 오죽헌과 안목해변을 다녀왔습니다. 오죽헌에서는 오천원과 오만원권의 지폐의 주인공이신 울곡이와 신사임당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조선시대의 삶과 문화를 정리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릉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안목해변 카페거리에서의 사진촬영과 커피한잔의 여유를 통해 고단한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로 지친 몸과 마음의 쉼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쉼터 친구들은 나들이 시간을 통해 쉼터 선생님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고, 일상에서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별별(別別)동아리」

2019년 3월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빌링슬리 아카데미)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27명의 다양한 색깔을 담아내고 재미와 흥미를 더해 만들어진 별별(別別)동아리! 10명의 실무자가 당사자의 기호를 고려해 만든 동아리는 시각적 자료를 통해 당사자의 선택을 받게 되어 운영됩니다. 당사자의 문해교육 및 학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자기계발 동아리, 자기관리의 꽃 뷰티동아리,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문화동아리, 마음과 몸의 건강을 책임지는 체육동아리, 맛의 탐방 식도락 동아리, 음악에 빠지고 싶다 뮤직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가 2-3명 단란하게 모여 최적의 환경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동아리 활동은 재선정되며, 당사자들의 날카로운 평가를 통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SPONSORSHIP

후원참여 문의 및 신청 : 복지사업1팀 2040-1632

CMS 후원

후원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결제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후원자의 동의아래 기관이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이체수수료는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지로후원

매월 초 가정 또는 직장으로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지로입금번호** 7607040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통장입금

복지관전용 후원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40-003-839930, 외환은행 272-22-00173-6, 국민은행 790-01-0035-287, 우리은행 725-157495-13-003

온라인 후원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네이버 해피빈에서 사이버 머니(콩) 후원 <http://happylog.naver.com/taiwha.do>

직접후원

복지관 지하1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후원

식품, 생필품, 도서, 의류 등 물품을 직접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서울 나눔가게 후원

지역 내의 상점, 학교, 기업체, 개인이 자율적으로 기부(물품, 서비스)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도움 받은 이웃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여 '나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후원활동입니다.

나눔 분야 (상점, 학교, 학원 등 업체에서는 이렇게 참여 가능합니다.)

- 교육 : 학원, 개인교습소의 무료수강지원
- 위생 : 이, 미용실·목욕탕 무료이용지원
- 문화 및 예술 : 공연장, 극장의 무료공연관람지원
- 보건 및 의료 : 병원·의원·약국 등의 무료진료, 약품지원
- 외식 및 생활용품 : 마켓, 식당의 음식, 생활용품 등을 무료제공지원
- 교통 및 이동지원 : 운수회사의 이동지원

2019년도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보고 (2019.1~2019.5)

후원금 수입		후원금 지출	
전년도사업지정후원금 이월금	46,853,370	결연후원금	5,125,000
전년도 비지정사업후원금 이월금	32,438,488	교육문화사업비	16,707,990
사업지정후원금	14,564,500	사례관리사업비	32,855,300
사업비 비지정후원금	60,407,340	서비스제공사업비	6,079,284
결연후원금	5,830,000	지역조직화사업비	2,409,880
외부지정후원금	30,164,000	이종범장학후원사업비	10,000,000
예금이자	34,768	후원홍보비	11,308,480
		복지관운영비	11,322,568
		이월금	94,483,964
합계	190,292,466	합계	190,292,466

Thanks to SPONSOR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후원에 참여하신 고마운 분들

일반후원

강다영	강용석	강푸른	강하영	고경문	박선영	박성분	박성원	박성희	박세희	이은정	이은희	이정심	이정자	이종은	
고기남	고미정	고애영	고유진	고은서	박수연	박순례	박유림	박유신	박윤자	이준석	이지연	이진교	이창준	이한영글	
고은정	고인자	고효영	구본환	권성오	박은지	박재진	박정훈	박종부	박주한	이현규	이형욱	이호진	인윤희	임덕순	
권소영	권영탁	권지현	권지혜	권현수	박주현	박지숙	박지영	박지원	박항미	임선빈	임성일	임이랑	임종필	임채춘	
권혜경	권혜진	길경자	길기태	김기운	박현경	박현주	방궁호	방동환	방상익	임태희	임한샘	장성주	장수진	장영자	
김경희	김근영	김기세	김기수	김기원	방승찬	방정열	배경희	배명희	배호균	장용훈	장정아	장현규	장현숙	장혜령	
김남희	김다숙	김다현	김덕형	김동준	배효범	백재철	변주희	서미향	서유정	전미나	전완기	전일배	정경환	정민정	
김동희	김명란	김명희	김민경	김민정	서정민	서창배	설원희	성기원	성미경	정민주	정민지	정승엽	정승원	정애경	
김성욱	김성은	김세정	김세현	김수정	성춘선	손문경	손문기	손문배	손문준	정연현	정영희	정용제	정원호	정윤성	
김승호	김애희	김연정	김영삼	김영우	손영지	손유진	송옥진	송정선	송충근	정의숙	정재훈	정진희	정혜욱	정휘원	
김용기	김원정	김윤숙	김윤승	김은경	송혜란	신근화	신대성	신선균	신순철	정희정	조경현	조세진	조송미	조아라	
김은기	김은숙	김은혜	김인관	김재영	심대식	심우찬	심장식	심정식	심형석	조유희	조윤경	조일호	조태욱	주덕윤	
김주하	김준호	김지수	김태은	김태형	안재윤	안정미	안정선	안지명	어윤희	주영성	지동현	진희경	차지현	최명범	
김평중	김필수	김하나	김현미	김현수	여수경	여운선	여현정	오병두	오정철	최미숙	최민서	최봉탁	최서영	최성실	
김현숙	김현학	김혜란	김혜림	김혜영	오종진	오하진	용도연	우정현	유인숙	최소영	최승만	최영복	최우혁	최원경	
김황희	니명경	나선미	나윤일	나윤찬	유형준	유혜선	윤민희	윤성주	윤송화	최유실	최윤석	최지아	최지웅	추경훈	
남기현	남수영	남현우	노선주	노유경	윤연주	윤은주	윤정아	윤지은	윤천성	탁현우	하순천	한경희	한남희	한문덕	
도세훈	도창현	라미희	류담주	류재식	윤화수	윤홍자	이기영	이경숙	이경진	한문석	한성욱	한영희	허진선	혜민	
류호연	류효순	류희만	문보영	문영숙	이근아	이근영	이덕영	이명자	이미경	홍승기	홍원순	황부자	황영웅	황재경	
문용기	문용채	문지희	박명숙	박상선	이미진	이복숙	이선복	이성숙	이성주	황현정	다애교회	봉크	대청뽀대귀감자랑		
					이소연	이수연	이숙희	이순자	이영주	사랑뽀희	서울연합교회	숙명여자중학교			
					이원재	이원해	이윤진	이은경	이은영	신성푸드서비스	신한은행일원역지점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삶, 넉넉해지는 마음!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마트수서점 재키헤어
제이원인터네셔널 피스코팩 해피빈

일시후원

김민우 김수경 김양순 김영수 김인숙
나병근 박옥영 이신우 이웅진 장지영
정현미 최애리 최희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숙명여자중학교
신한은행일원역지점 에스원
월계종합사회복지관 하트하트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결연후원

김문성 문석주 박용덕 손선희 이아진
임장현 최미양 최재훈 최정훈 현정순
미국남가주사랑의교회

물품후원

김지은 박일영 A&NewYork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게이트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강남
동부지사 글로벌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땡글 리뉴얼디자인 마가린핑거스
마시밀라노 바바수 바비제이 바이스타
베스티안재단 비존엔지니어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트레이딩
스튜디오빈티지 시슬리 신성푸드서비스
에스엠토이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째즈에이지 체리아 태영섬유 특삼
파리바게뜨수서동성당점 하이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Thanks to VOLUNTEER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원봉사해주신 고마운 분들

태화아름드리키움센터 초등돌봄반

강소연 김다빈 김도현 김윤진 남현수 백경난 소은진
신동현 신유리 양민수 오대환 윤주영 이 주 이현서
정해은 정혜리 추세린 한화갤러리아백화점명품관

태화아름드리키움센터 장애초등돌봄반

국충만 김규희 김민정 김선우 김영아 노은서 류연석
박선주 서유정 신민경 이하영 임주현 정수아 한경현
스타벅스코리아 포스코A&C

향기로운나눔-가족품애

김에덴 송효미 이경동

살맛나는 우리동네-우리동네 명랑마켓

강민정 강성연 강시연 공다재 김민채 김민형 김연희
나윤서 류성희 박주하 박혜선 배우리 신주원 안경옥
이려진 이믿음 이사랑 이소망 이준석 이준혁 이하윤
이희준 인가연 안윤희 장태원 지예은 최선우 최수빈
최연우 함석희 허예린 황수지

인생의 맛+레시피

소은진 이상욱 이하영

가족도서관

권유리 김소빈 김송이 서승민 오승현 이예은 이준혜
정채원

태화바자회

고 훈 고은정 공선숙 김경란 김도현 김성자 김수정
김영아 김현지 김희진 박경화 박상희 서유정 소은진
신동현 신미정 오대환 오정아 유지수 이미경 이혜경
전지선 정혜옥 조민자 일원중앙교회먹거리봉사팀

평생학습팀

김나영 이지은 정혜리 정혜정

태화유아체능단

김나윤 김남호 김다은 심윤하 윤신혜

가족도서관 영어스토리텔링

김재우 김주영 김준서 변서운 양호연 양희지 어유연
오은재 이한주 최연희 홍민재 홍민정

사랑의도시락

(조리) 길태섭 김경미 김영민 노재숙 명미숙 이상희
이영미 정수진 조영희
(배달) 금보경 김강호 김건호 김민주 김민호 김보민
김연화 김은경 김진주 김태영 박찬웅 박희정 서훈이
신경호 양희정 임경수 임고은 임효주 정난영 한동윤

강남NH 3단지 찾아가는 복지센터

강동연 계승효 김익인 백진규 안선현 윤동현 이혜빈
진호민 황치한

사랑빵회

길태섭 김현주 노재숙 박현옥 서금숙 엄지연 윤은전
이경옥 이남경 이은미 이정심 이종경 이지희 장 명
장재희 최양신 황 경

대학생 사회봉사

강민정 김지윤 김지은 박채민 변지원 이승현 이윤희
이하은 정다겸

대청빼다귀감자탕

일원동 맛의 거리, 부담 없는 가격에
깊은 감자탕을 맛 볼 수 있는 곳!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종종 이용한 대청빼다귀감자탕은 주민들 내에서 맛으로 소문난 음식점입니다. 이렇게 인연을 시작하여 사장님과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태화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2017년부터 정기후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태화의 이웃들을 위해 좋은 자리 마련과 정기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대청빼다귀감자탕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랜시간 우려낸 깊은 육수와 넉넉한 양,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까지 우리동네 나눔가게 “대청빼다귀감자탕”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청빼다귀감자탕 ☎ 02-445-64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9길 26

태화와 함께 나눔을 실천 할 기업을 찾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동행할 기업들의 물품후원, 기금후원, 자원봉사활동을 기다립니다. 기업에서 후원하신 물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복지사업팀 2040-1632



31운동이 시작된 1919년 태화관
대한민국 독립운동 100년의 역사를
대한민국 사회복지 100년의 역사로 이어갑니다.



경기도 태화복지재단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06353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85 Tel. 2040.1600 Fax. 2040.1791

www.taiwha.or.kr  www.facebook.com/taiwha